지역 소식통

김제시립도서관 도서대출서비스 운영

지난 2월 21일 김제시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한 날부터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8개소가 진정 시까지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휴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도서관 회원이 지역 서점(제일서점, 삼화서점)에서 도서관에 없는 도서나 신간도서를 신청하여 읽고 해당 서점에 반납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이용하는 회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인 1권, 최대 월 2권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본인인증 등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걸친 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오디오북 등 9,100여종의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구내식당 매주 금요일 휴무 실시

완주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내 음식점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지난 6일 군청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봉동 둔산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 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 비상근무로 수고하는 간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완주군은 구내식당 휴무일을 한 달에 두 번에서 이달부터는 매주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공무원노조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를 적극 수용하면서 가능해졌다.

박성일 군수는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완주군, 올해 총 22억원 투입 민간 확대 보급… 총 116대
취약계층 우선 구매 지원 · 이달 11~17일까지 신청 가능

완주군이 전지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완주군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친환경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은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총 22억원을 투입, 전기자동차를 민간 확대 보급해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16대 등 총 116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해 사업 물량인 80대보다 45% 가까이 확대 지원한다.

특히 1톤 소형 전기화물차 16대를 신규로 보급함에 따라 농작업 연료비 절감 등 지역 농민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720만원까지이며, 화물차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거나 완주군에 소재를 둔 법인, 사업자이며 1개소당 1대만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2년내에 동일 차종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가 판매점에서 사전 구매계약을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과 전기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군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 경기회복 총력 대처"

박준배 김제시장
확대간부회의서

김제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부서별 협조상황을 공유했다.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실장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부서별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9 예방에 부서별로 총력을 다하고, 읍면동장에게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를 김제시민이 살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될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 김제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 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3개분야 참여자 22명을 모집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란 5060세대를 지칭하는 신(新)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신중년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 전통시장 매니저,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총 3개 분야이며 선발인원은 22명이다.

김제시는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금융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매니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 대상 심층 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 마케팅, 금융, 사회복지 등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 경력이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오는 3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및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는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 지원(시급 10천원~11천원) 및 4대보험이 적용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고용센터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해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칠곡군을 응원하기 위해 면역력에 좋은 생강진액 100상자를 전달했다.

20년 넘게 우정 쌓은 지자체 응원

면역에 좋은 생강진액 100상자… 완주군, 경북 칠곡군에 전달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20년 넘게 우정을 쌓고 있는 경북 칠곡군(군수 백선기) 응원에 나섰다.

완주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칠곡군을 응원하기 위해 면역력 증강에 좋은 생강진액 100상자를 전달했다.

생강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지난해 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칠곡군은 43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으로 확산 방지에 매달리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칠곡군의 확진자가 늘어나자 백선기 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칠곡군이 위대한 군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 완주군민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완주군과 경북 칠곡군은 지난 1999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2015년 3월부터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해왔다. 박 군수와 백선기 칠곡군수는 1955년생 동갑내기로, 서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공직자 출신의 행정전문가라는 점에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박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우정을 나누고 칠곡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코로나19 방역 직접 앞장서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난 6일 방역소독 활동에 직접 나섬으로써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이날 활동에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자원봉사자,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김제역과 터미널 대합실부터 화장실, 외부 승강장까지 방역 소독을 직접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 홍보 전단지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현재 김제역, 터미널 및 읍·면지역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김제시 보건소에서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권 주요 도로변과 버스 승강장 실외소독 또한 방역 인력을 투입하여 매일 일출 전에 실시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촘촘하고 실질적인 방역소독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